

더민주 “넓은 정치 이별... 기필코 정권교체”

당선인 첫 모임...광주·전남 유일 생존자 이개호 ‘울먹’ “계파·나태주의 버려야” 자성...민생경제 7대 약속 발표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당선인들은 20일 국회에서 ‘당선인 대회’를 열고 20대 국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 모임을 했다. 이 자리의 키워드는 ‘정권교체’였다. 당선자들은 총선 결과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당선인들은 ‘나태’와 ‘계파주의’ ‘내분’을 경계하는 발언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부터 ‘채찍’을 들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내 제1당으로 등장했다”고 자축하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더민주가 종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가 굉장히 냉혹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패전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한다”며 “총선 당시 약속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대선까지 남은) 1년 이상을 더 노력하면 기필코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성수 당선인(비례)도 “자만해서도 나태해서도 안 되며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2017년 정권교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자성도 쏟아졌다. 오세훈 의원은 “계파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집권할 때까지는 자기를 죽이는 태도를 보여줄까 바란다”고 했고, 박병계 의원도 “정권교체를 위해 정말 호소드린다. 단결하자”고 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개호 의원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 다 잃고 혼자 왔다”며 1분여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반드시 야권의 심장 광주·

전남을 되찾겠다”고 밝혀 동료의 박수를 받았다. 좀처럼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 김 대표도 자리에서 발언을 듣다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킨 넓은 성

장론, 한반도 불안을 조성한 넓은 안보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넓은 이념론과 과감히 결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양극화 해소와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이룩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제시했다.

당선인들은 소감발표를 마치고 최은열 당선인(선대위 경제상황실장)으로부터 경

제공약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선전만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경제 정책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최 당선인은 이날 강연자료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산업 포함하자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개호 “혼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의 유일한 당선인인 이개호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대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안희정

대선 ‘50대 기수론’

세대교체 부상...與 유승민·남경필, 野 김부겸·안희정 주목

20대 총선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새로운 의회 지형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대선 기상도마저 판이하게 바꿔놓았다.

새누리당 참패로 새누리당 김부겸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기존 여권 유력 주자로 인식되던 후보군이 일거에 경쟁 구도의 상층부에서 사라지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레이스 초반전에 상위권을 거의 독식할 만큼 주자들이 차고 남치게 됐다. ‘호남 성적표’와 정치 생명을 갈부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상처를 입었음에도 차기 지지도는 올랐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김부겸 더민주 당선인 등이 급부상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기존 주자들도 대거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현재의 야권이 대패했던 2007년 대선 이전의 ‘대지부’ 같은 상황이다.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인물난’에 시달렸던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손학규’ 등 유력 주자가 넘쳐났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란 금언처럼 이런 초반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처럼 야권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대권 판세는, 역사적으로 대선 구도와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대권 구도의 유동성과 불안정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선 ‘필승 후보’로 꼽을 주자를 찾기 어려운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구도가 그대로 간다면

‘필패’가 불가피한 만큼 현재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송두리째 뒤엎을 여력을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게 세대 교체론자들의 논리다.

이들은 세대교체의 주역이 될 요건으로 ‘과거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으면서 참신하고 젊은 정치인’을 들고 있다.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한 유승민(58) 의원과 남경필(51) 경기지사, 원희룡(52) 제주지사 등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급격히 이탈한 ‘중도층’의 표심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중도적 이미지를 지닌데다, 모두 50대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른바 ‘5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에서 50대 기수론으로 바람몰이를 시도한다면, 야권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미 50대 유력 주자인 안철수(54) 상임공동대표를 앞세워 일찌감치 초반 기준 제약에 나섰다. 더민주도 적지않게 생환하며 주자 반열에 오른 김부겸(58) 당선인과 총선구에서 야권 맹주 역할을 해온 안희정(52) 충남지사가 버티고 있다. 막 60대에 접어든 박원순(60) 서울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더민주의 경우 차세대 정치인들의 약진이 정치권의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는다면, 과거 대권에 도전했던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같은 기존 주자들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야권의 잠재적 주자로 분류돼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대 교체론이 힘을 받는 환경에서는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새 원내대표 5월초 선출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총리 물망...무소속 복당 심사 지연

총선 참패 후유증을 수습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초 선출 예정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여 당의 지도체제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외계 원내대표는 20일 “나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대표권한대행”이라면서 “비대위원장을 겸할 차기 원내대표를 5월초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 지도체제가 탄생한다.

이처럼 지도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총선 공전에 불복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하나 둘 복당을 신청하고 있지만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

석수는 당분간 122석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당대회까지 당 운영을 맡아 총선 참패 후유증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보 인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인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새누리당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박(비박근혜)계와 개혁·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외부 인사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탈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같은 의견 대립 속에 비대위원장으로 전남 장성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선진화법’ 입장 바뀐 여야

국민의당·더민주 “개정 논의”... 새누리 “민생법안 먼저”

4·13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변화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뒤바뀌고 있다.

총선 이전에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총선 이후에는 야권이 개정의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면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권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선진화법 개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다당제에서 선진화법은 그리 필요치 않다”며 마지막 입

시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진화법 개정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개정을 강력 추진했지만 총선 후 과반이 붕괴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한편, 정의와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 21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대 개원 준비 순조...5월11일 초선 연찬회

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지난 14일 ‘개원 종합지원실’을 국회 본관 3층에 마련했다. 이곳에서 당선인들은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분회의장에 놓일 국회의원 명패도 제작 중이다. 다만, 분회의장의 자리배치는 통상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모

여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에는 초선의원 연찬회가 열린다.

개원식도 준비 중이다. 여야 각 정당의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야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서교동, 상업지역,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9억 5천만원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등등 적합

주인직매 H. 010-8829-6876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교육비 1,200만원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